

# 4대 금융지주, 작년 역대급 실적... 비은행이 희비 갈랐다

총 수익 9% 증가, 16조4205억  
**KB금융** 증권·손해보험·카드 성장  
 각각 당기순익 50%, 17%, 15% ↑  
**신한금융** 투자증권 순익 144% ↑  
**하나금융** 증권·카드사 실적 호조  
**우리금융** 카드 전년비 32% 증가



국내 4대(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사가 지난해 16조원을 웃도는 순이익을 내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지주의 실적 성패는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면서 올해 비은행 강화 비율 높이에 총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금융지주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6조4205억원으로 지난 2023년(15조115억원) 대비 1조4090억원(9.3%)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지주 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은 전년(4조5948억원) 대비 10.5% (4834억

원) 증가한 5조7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5조클럽에 입성했다. 지난 2021년 처음으로 '4조 클럽'을 달성한 후 3년 만에 '5조 클럽' 입성이다.

이어 신한금융이 4조5175억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하나금융 3조7388억원, 우리금융 3조860억원 순이다.

금융사들이 역대급 순이익을 거둔 이유는 이자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행이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50%에서 3.00%로 인하했지만, 금융사들은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예대금리차가 높아지면서 4대 금융사의 총 이자이익은 41조8760억원에 달했다. 전년(40조6553억원)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금융지주지만 순이익의 향방은 비은행 계열사 실적에서 갈렸다.

리딩금융을 수성한 KB금융은 KB증

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 등 주요 비은행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50.3%, 17.7%, 14.7%, 15.1% 증가했다.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면서 KB금융 실적에 견인했다.

신한금융은 신한투자증권 순이익이 143.6% 급증, 신한라이프 11.98% 증가했지만, 신한카드가 -7.8%, 신한캐피탈 -61.5%, EZ손보 174억원 적자, 신한자산신탁 308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하나금융의 경우 증권·카드 계열사가 실적 호조세를 기록했지만 다른 계열사의 경우 역성장을 기록했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225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지난 2023년 2924억원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했고, 하나카드는 역시 두자릿수 성장에 성공해 2217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하나캐피탈(1163억원)과 하나자산신탁(588억원)은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각각 44.5%와 27.3% 감소했다. 또한 하나생명은 7억원, 하나

저축은행은 3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금융 역시 우리카드가 전년 대비 32.4% 증가했고, 우리금융캐피탈 10.9% 증가, 우리투자증권 흑자(20억원)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들 계열사들의 합한 당기순이익은 약 2910억원에 불과하다. 4대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보험사가 없는 우리금융 입장에선 당국으로부터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승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4대 금융의 비은행 기여도는 KB금융이 40%로 압도적 1위를, 이어 신한금융 25%, 하나금융 15%, 우리금융 8.4%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비은행 계열사들의 수익 비중을 키우는 동시에 비이자이익 확대에도 주력할 것"이라며 "금리 변동기에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여부가 안정적인 그룹 순이익 유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그룹들의 M&A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인도 성장률 둔화... 펀드 올들어 6.73% ↓

증시 니프티50 고점대비 10% 하락  
 과거 성장률 8%... 올해 6%대 예상  
 달러당 87루피... 환율 사상 최저치  
 외국인, 3개월새 증시 300억달러 매도

한때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았던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둔화하면서 인도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의 경기 활성화 의지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37개 인도 펀드는 연초 이후 평균 6.7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유럽 펀드(6.88%), 일본 펀드(-1.55%), 중국 펀드(-0.78%), 미국 펀드(-0.44%) 등과 비교하면 주요 국가별 펀드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또한 인도 관련 ETF(상장지수펀드)도 부진했다. 'TIGER 인도니프티50레버리지(합성)'와 'KODEX 인도 Nifty50 레버리지(합성)'의 3개월 수익률은 각각 -6.66%, -6.15%를 기록했다. 'KODEX 인도Nifty50'과 'TIGER 인도니프티50'도 -2.34%, -2.03%로 하락했다. 'ACE인도컨슈머퍼워드액티브' 역시 -8.97%로 낙폭이 컸다.

(주요국 펀드 평균수익률) /에프앤가이드

지역/국가	연초이후(%)
유럽	6.88
미국	-0.44
일본	-1.55
중국	-0.78
인도	-6.73

인도 증시의 대표 지수인 니프티50지수도 지난해 9월 고점 대비 약 10%가량 하락했다. 인도 경제 성장세 둔화가 증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8%대 성장률을 이어가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 중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제조업 부진과 기업 투자 둔화 등의 영향을 반영해 2024~20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GDP 성장률을 6.4%로 제시했다. 2025~2026회계연도 성장률도 6.3~6.8%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목표로 한 연 8%대 경제 성장과는 격차가 커지고 있다.

환율도 인도 시장의 불안 요소다. 루피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달러당 83루피 수준이었

던 환율은 현재 87루피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인도 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 증시에서 300억 달러 이상 순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시들해지고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인도 펀드 설정액은 700억원 넘게 줄었다. 인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간 '관세 전쟁' 속에서 인도가 반사적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하장권 LS증권 연구원은 "최근 트럼프 관세 이슈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을 대체할 투자처로 인도가 주목받을 수 있다"며 "중국 내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수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고금리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강한 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도 역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를 피해 갈 수는 없겠으나 여전히 연간 성장률 추정치가 6.5%대로 다른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

## '반도체법·연금·추경' 줄다리기 이재명·권성동, 국회연설 출격

### 2월 임시국회 주도권 선점 경쟁

국정이 혼란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잇따라 나서며 2월 임시국회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정당의 비전을 제시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일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 정당이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권자들에게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쌓아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 전망된다.

이재명 '내란 동조세력' 강조 차기 대권주자 면모 부각할 듯  
 권성동, 입법폭주·의회독재 등 보수세력 결집에 주력할 것

9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로 연설에 나선다. 양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입에서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2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확인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두 달로 접어들었는데도 국정이 '내란 동조세력' 때문에 안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우클릭'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최근 신년 기자회견담회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민간이 이끌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성장'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집권플랜 본부는 지난 6일 민주당이 집권하면 5년 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 대표는 최근 서울서부방법원 폭동 등 정치 양극화에 따른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우려를 표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추진 특검과 입법 강행, 국무위원의 출탄핵 시도, 국회 측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죄 철회, 카톡 검열 의혹 등 민주당의 '입법 폭주', '의회 독재' 등을 언급하며 보수세력 결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하면서 이를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위장 전술'이라고 깎아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재판 지연'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 담당 실무자는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함께 오는 12~14일엔 국무위원 등을 국회로 불러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따져 묻고, 탄핵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재판관의 독립성 등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푸네공장, 인도 남부 진출 전초기지로

>> 1면 '축구장 8개 크기...'서 계속

기존 구자라트 공장의 생산 물량은 핵심 상권인 서북부지역에 더욱 집중 공급한다. 또한 푸네시가 빙과 생산 주요 원료를 가까운 거리에서 공급받을 수 있어 비용 절감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브모어는 롯데 브랜드 제품 생산도

확대한다. 현재 구자라트 공장에서 월드론을 생산하고 있으며, 푸네 신공장에서 대치바, 죠스바, 수박바 등을 연내 순차적으로 생산해 인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인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롯데 브랜드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롯데웰푸드는 신공장 준공 및 통합법

인 출범 등을 잇따라 진행하며 인도 시장 공략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상반기 내에 출범하는 롯데 인디아(LOTTE India)와 하브모어의 통합법인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물류 거점을 통합해 효율화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 하리아나 공장을 빼빼로 브랜드의 첫 해외 생산기지로 낙점하고 올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롯데웰푸드는 글로벌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기업 가치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